실크로드의 건축기행(2)

중국과 인도대륙의 건축

The Architecture of the Chinese and Indian Subcontinent

金晟坤/ 동아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by Kim, Sung-Kon

1. 중국의 전통건축

중국은 동서로 5,000㎞, 남북으로 5,500㎞에 달하는 넓은 국토를 가지며 그의 면적은 960km^2로서 유럽의 크기와 비슷한 광대한 영역이기에 중국대륙(中國大陸)이라고 부르게 된다. 중국의 지세는 서고동저(西高東低)의 모습이다. 세계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티베트 고원은 해발 4,000m 이상이며 특히 8,848m의 에베레스트산도 중국과 네팔의 국경에 있다. 전 육지 면적의 65%가 산악이나 고원지대이고 히말라야, 곤륜, 천산, 알타이 등 4대 산맥이 동서형으로 뻗혀 있다. 그리고 광대한 평야에는 장강(長江:6,300㎞), 황하(黃河:5,464㎞), 주강(珠江:2,197㎞)이 동쪽 해안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황하유역은 중국고대 문명의 발상지가 많으며 중화민족의 요람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대한 국토를 그의 영역으로 하고 있는 중국은 지역에 따라 지세, 기후, 재료 등이 크게 다르며 건축의 구조, 재료, 설비, 표현을 달리한다. 예를 들면 몽골, 서역, 티벳 등의 내륙적 건조지역(內陸的 乾燥地域)에선 목재가 귀하기 때문에 흙벽돌의 평지붕이고 외벽의 창은 생략되거나 매우 작다. 비가 적고 차가운 겨울이 있는 황하 이북의 화북(華北)지방에선 지붕 처마의 돌출도 작고 창도 작으나 벽체는 두터워서 중후한 모습이다. 그리고 황화와 양자강사이의 화중(華中)이나 이의 남쪽지방(華南)은 목재가 있으므로 주요 구조재는 목재이며 비도 많으므로 주요 구조재는 목재이며 비도 많으므로 지붕처마의 돌출도 크고 지붕 물매도 크다.

동부아시아에 널리 퍼져있는 전통적 목조건축의 발상지도 중국이다. 땅을 파서 움막을 지었던 원시적 수혈주거(竪血住居)를 지나 지상건축으로 발전된 것은 은(殷:B.C 17~11세기)대 부터인것 같으며 하남성에서 발굴된 궁궐터는 지상의 목조건축으로선 가장 오래된 것이다. 다음의 주(周:B.C 12~8세기)대에는 목조건축양식이 완성되고 특히 중정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건축물을 배치하는 사합방(四合旁)평면 방식은 주택에서 궁전에 이르기까지 건축평면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기원전 3세기에는 이미 기와가 사용되었고 지붕과 기둥상부에서 지붕처마를 받쳐주는 부분의 두공(枓栱) 부재를 건축가구(建築架構)에 등장시키는 등 주량건축(柱梁建築)의 가구법이 개발되었다. 이때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게 된 진(秦)과 한(漢)제국의 건축문화는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동양목조건축문화를 완성시켰다. 진시황의 중국통일은 전체중국을 통일대국으로 발전시킨 정치적인 의의와 함께 중국의 건축기술과 양식(樣式)을 통일시켰다는 데에 더 큰 의의가 있다. 즉 진을 이은 한문화의 건축양식을 형성시킨 결과가 되었다.

한문화(漢文化)가 형성되고 전개되어온 것은 정치적인 요소로서만은 아니며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문화의 독자성은 중국대륙의 자연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외래 문화의 침투를 허용치 않는 자연환경 때문에 독자적으로 문화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던 한민족은 결과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민족으로 자라게 되었다. 주량건축의 특색으로서 높은 기단(基壇)을 만들고 그 위에 세운 기둥과 보

를 세운 목조건물의 출입구는 보방향의 벽체가 아닌 도리(道理)방향의 벽체중앙에 두게 되었다. 이것은 건물 정면의 장중함을 드높이기 위해 지붕의 처마 부분을 위로 올려야 하는 조형적인 역할을 두공이 담당하게 되고 또한 이의 의장성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른 평면형식은 건물을 좌우로 넓게 하며 이와 맞닿는 앞마당(前庭)과의 연결은 또한 효용성도 드높이게 되었다.

중국에 남아 있는 최고(最古)의 목조건축물로선 당대의 A.D 782년에 건립된 오대산의 남선사(南禪寺)대전(3간×3간)과 A.D 877년에 건립된 불광사(佛光寺)대전(7간×7간)이다. 이들 건물의 구조와 조형은 지붕물매가 완만하고 처마가 깊지 않으며 기둥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더욱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주두위에 놓여진 두공은 기둥을 중심으로 전후·좌우로 서로 얽히게 한 역삼각형(逆三角形)의 구조체이다. 따라서 이것은 처마를 더욱 깊게 함으로써 뚜렷한 내외 완충공간을 구성한 것이며 지붕을 더욱 높고 크게 만든 결과를 낳았다.

목조건축물의 기와지붕은 외관구성이나 조형에 큰 특색을 이룬다. 특히 지붕의 처마끝을 올리는 형식은 당대 이전에 이미 취해진것 같다. 처마 끝을 올리는 양식도 지역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황량한 자연환경속의 화북지방에선 처마끝을 올리는 것이 적으나 풍류를 즐기던 화중지방에선 더욱 높아졌으며 화남지방에선 더욱 치솟고 있다. 또한 그림이나 조각 또는 장식 등도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장식적이다.

한(漢)나라 후기부터 몇 세기에 거례 지어졌던 궁전의 의장이나 계획 등은 당시 불교도들에 의해 불교건축에 그대로 인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불교사원의 전형적인 배치는 남쪽을 면한 장방형의 부지 주위를 회랑으로 두르고 누문을 위시해서 남북축(南北軸)에 따라 많은 건물을 대칭적으로 배열하게 되었던 것이다. 궁궐이나 사찰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건물에서도 대칭성(對稱性)이 강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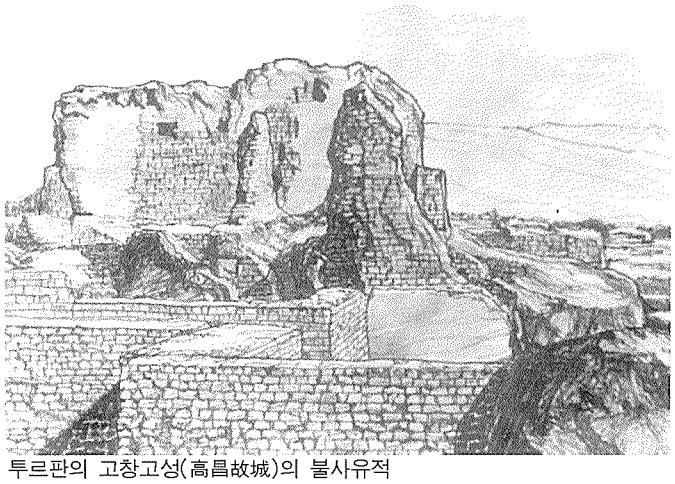
중국 건축은 탁월한 문화를 이룩한 중국인들에 의해 황하유역에서 먼저 발전되었다. 외래민족이 정권을 잡은 시대에도 그들의 훌륭한 문화와 더불어 형성된 건축에 대해선 약간의 장식을 덧붙이는 것에 불과했다. 그들의 건축양식은 불교의 포교와 더불어 한국, 일본으로 전파되어 갔다. 그들은 한문화(漢文化)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으므로 설혹 외래의 요소가 닥쳐도 그의 영향은 적었다. 따라서 중국의 건축은 오랜 역사를 지니면서도 큰 변화가 없었으며 다만 세부적인 양식의 변화 등이 시대성을 나타내는 데에 머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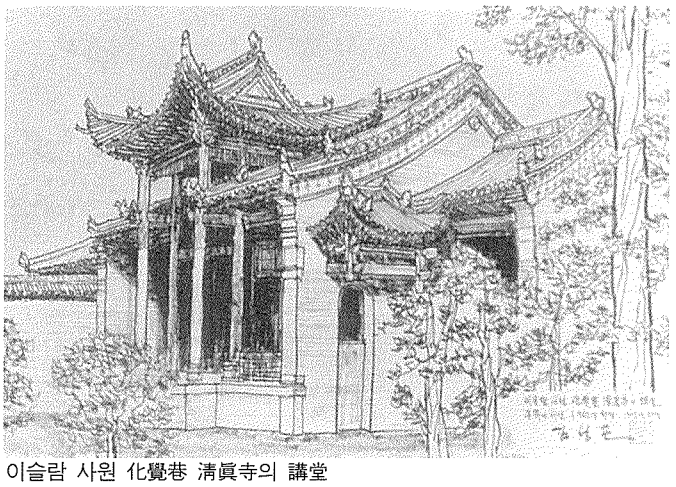
2. 전통주택 사합원

명·청대의 500년 왕도의 북경은 견고한 성벽이 둘러진 성곽도시였다. 그러나 1949년 새로운 중국의 출범과 함께 명대에 축성했던 성벽도 헐고 대로를 개설하면서 성곽 도시적인 특징은 사라지고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성문이나 이름만 남아있는 성문 등으로 옛 성곽도시의 규모를 상상해 보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고층 건물에 의한 재개발로 전통적인 도시주택인 사합원(四合院)이나 호동(胡同)이란 이름의 골목도 소멸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쉽다. 이제는 자금성 동서 양측의 옛 내성부분에서 약간 남아 있을 뿐이고 또한 언젠가는 헐리게 될 것이므로 손질을 하지 않기에 노후화되어 당초 사합원이 지녔던 멋과 색깔은 퇴색되어 있다.

중국은 거대한 국토를 지니고 자연환경이나 지역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의 형식도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북경을 중심한 화북이나 동북의 평원지역에는 삼합원(三合院)이나 사합원 등의 원락식주택(院落式住宅)형식이 주를 이루며 강남지역에선 가로와 하천에 따라 연이어진 연배식주택(聯排式住宅)이고 종족끼리 모여 사는 지역에선 집체식주택(集體式住宅)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목재를 사용한 주택의 흔적을 볼 수 있으나 주택의 형태로서 남아 있는 것은 명(明:1368-1644)나라 이후의 것들이다. 그러나 기와나 벽돌에 새겨진 그림을 보면 한나라(漢:B.C202-A.D221)때에 이미 기와나 중정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보다도 오래된 문헌에 의하면 은(殷:BC17-11세기)나라나 주(周:BC12-8세기) 나라때


투르판의 고창고성(高昌故城)의 불사유적


이슬람 사원 化覺巷 淸眞寺의 講堂

에 이미 벽으로 둘러진 중정형태의 주택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같다. 지금 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옛 주택은 명나라때의 것이나 여기에는 사합원 형식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합원은 북경을 중심으로 화북지방의 것이라고 하나 화남지방의 천정(天井:採光庭)도 사합원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사합원 형식을 취하고 있는 중국 주택의 특징은 첫째 외벽으로서 에워싸므로써 외적의 침입을 막고 찬 바람이나 모래 바람을 막도록 했다. 둘째는 목구조이므로 사각형의 평면을 지닌 단층 건물이고 주요 건물은 남향으로 배치했다. 그리고 목조 건축이었으므로 대규모의 건물이나 다층(多層) 건물이 배제되고 건물군(建物群)의 전개에서도 중정(院子)이 핵심이 되고 있다.

사합원이란 사각형의 중정(中庭:院子)을 중앙에 두고 네동의 집으로 에워싼 형식의 주택으로서 내원식주택(內院式住宅)이라고도 한다. 주택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중정을 중심으로 방으로 에워싸게 되며 이러한 중정이 하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두개일 때는 안쪽의 것을 내택(內宅)이라 하고 바깥것은 외택(外宅)이라 한다. 그리고 황족 등의 대저택에선 중정이 7~9개의 경우도 있다. 소규모 사합원의 중정에는 식수도 없고 다만 벽돌이나 돌로서 포장되어 있다.

벽체는 벽돌조이고 기와지붕으로 중정에 면한 개구부는 목재기둥도 있으나 외측(도로측)의 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곤 작은 창이 있거나 아예 창이 없고 외부에 대해선 폐쇄적이다. 또한 외부로부터 안마당이 바로 보이지 않게 영벽(影壁) 처리된 것도 있다. 중정을 중심으로 남향의 방이 가장 귀중한 방으로서 정방(正旁)이라 하고 동서향의 방은 상방(廂旁)이며 북향방은 도좌방(倒座旁)이라한다. 옛 주택가의 호동(골목)은 동서방향이 많으며 서민주택에선 남쪽에 호동이 있을 때 대문은 동남측이고 북쪽에 호동이 있을 때 대문은 동남측이고 북쪽에 호동이 있을 때는 서북방에 대문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설과 연관된 배치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주택이라고 하면 가옥과 정원이 합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이런 관점에서 크게 분류하면 지구상의 민가는 외정형(外庭型)과 내정형(內庭型)으로 나누인다.우리나라와 같이 비교적 부드러운 자연환경을 가질 때 집주변에 마당이나 정원을 두는 형식은 외정형에 속한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높은 외벽에 에워싸인 사합원은 내정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의 민가는 서역을 포함한 중앙아시아나 서방아시아 및 지중해지역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분포상황은 실크로드와 일치되는 것으로 우연한 결과가 아닌 문화교류의 소산이 아닌가 싶다.

3. 인도의 불교 및 힌두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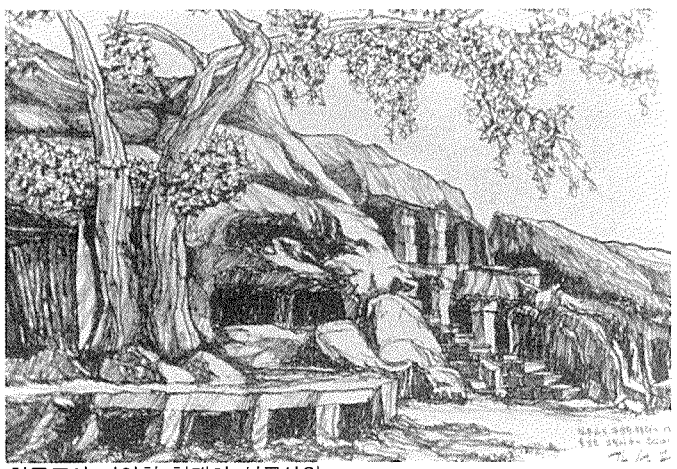
인류문명의 4대 발상지 중의 하나인 인더스문명이 기원전 2,500년부터 약 천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북쪽에서 밀어닥친 인도 · 아리안족이 힌드크슈산맥을 넘어 서북인도에 침입해 들어와서 모든 문명을 무참하게 파괴해 버렸던 것이다. 이후 천년간은 어떤 왕조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문화유적도 전혀 발견되는 것이 없어서 인도건축사에서도 공백기로 남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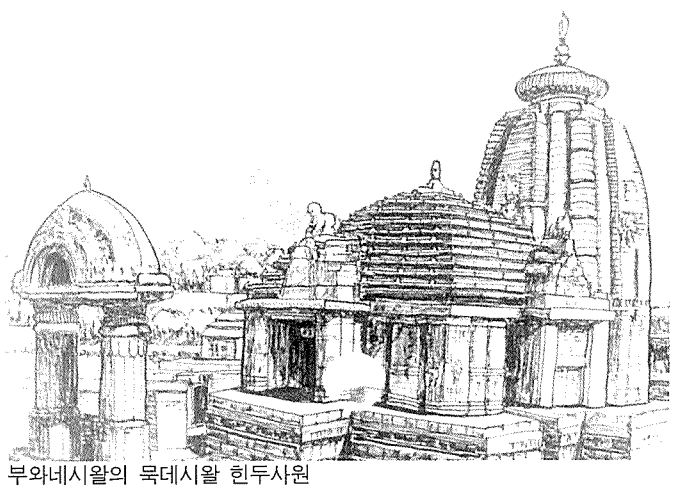
기원전 500년경에는 인도 동부의 갠지스강 유역에 문화의 일대 변혁이 일어나 본격적인 도시의 성립과 국가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철기(鐵器)를 사용하기에 이르렀고 건축물에 있어서도 흙벽돌에서 소성벽돌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도시시설로서 하수시설도 갖추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현상을 종합하면 인도대륙 서측의 인더스강 유역에서는 일찍이 4,500년 전부터 문명이 시작된 반면에 동측의 갠지스강 유역에서는 2,500년 전부터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 셈이다.

따라서 인도의 서측 지역인 인더스강 유역(현재의 파키스탄)을 제외한 인도지역에서는 2,500년이 넘는 고대유적은 전혀 없다. 고대 인도의 고대건축의 분포를 보면 갠지스강 유역에서는 건축적인 유적이 적어서 북부는 거의 무시되고 있다. 반면에 남부인도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남부 인도야말로 사원건축의 고장이라고 한다.

인도 북부의 갠지스강 유역은 비옥한 대평원이 있기


힌두교의 다양한 형태의 석굴사원


부와네시왈의 묵데시왈 힌두사원

에 일찍부터 정복자들이 탐을 내는 대상지였다. 이 지역은 가장 먼저 이슬람이 침입했으며 무갈제국(Mughal Empire;1526~1858)이 들어서기 전 이미 500여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는 등 총 800여년간 이슬람왕국의 중심지였다. 이슬람교는 교리상 철저한 우상숭배를 부정하는 종교였으므로 일체의 에배상(禮拜像)을 파괴해 버렸다. 따라서 불교사찰이나 불탑, 힌두사원은 철저히 제거했던 것이다. 인도 북부에서도 불교나 힌두교의 건축이 남아 있는 곳은 이슬람이 침입하지 못했던 히말라야의 산지 등에 국한되고 있다.

이 시기에 종교건축 뿐만 아니라 힌두왕국의 화려한 궁전이나 성곽 등도 함께 파괴당함으로써 이슬람 이전의 유적이 거의 없는 결과가 되었다.

인도건축에서는 그의 기원이었을 목조에 대한 유적은 모리아제국(Mauryan Empire;317~185 B.C)의 수도였던 파티리프트라(현 Patra)에서 발견된 나무 울타리를 제외하곤 유물이 전혀 없다. 5세기 초 중국의 법현(法顯)의 기록에 의하면 이 도시느 장엄하고 화려했었다고 하며 당시 호화로운 목조나 석조의 건물들이 즐비했으리라 짐작된다.

석조건축에 있어서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석굴 사원과 같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남아 있다. 이러한 석굴사원은 페르시아에서 이미 기원전 6~5세기에 만들었던 암굴분묘의 형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구조는 목구조(木構造)의 기법이 그대로 석조로 이어졌으며 또한 나무에 새겨지던 조각기법이 석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인도·이슬람시대 이전의 건축으로 현재 남이 있는 것은 대개가 종교건축이다. 종교로서 불교나 자이나교보다 앞섰던 힌두교는 이미 기원전 5세기에는 사제(司祭)를 위시한 카스트 제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힌두건축의 유적은 기원후 4세기부터이며 5~6세기의 힌두교 미술의 융성기를 지나 대규모의 힌두사원건축이 건립된 것은 8세기부터이다.

불교는 힌두교보다는 뒤늦은 것이었으나 석가모니(556~486경 B.C)가 입멸한 후 이미 일찍부터 불탑(佛塔)이 전국각지에 세워졌다. 특히 아쇼카대왕(268~232 B.C)의 시기에는 인도대륙의 대부분이 그의 영토가 되었으며 또한 대왕 스스로가 불교에 귀의함으로써 불탑이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500년간(250 B.C~A.D 250)불교의 석굴사원이 활발히 만들어졌다. 특히 2~3세기의 간다라의 불교미술은 수준높은 조각과 건축유적을 남겼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불상(佛像)이 출현됨에 따라 새로운 불교사원건축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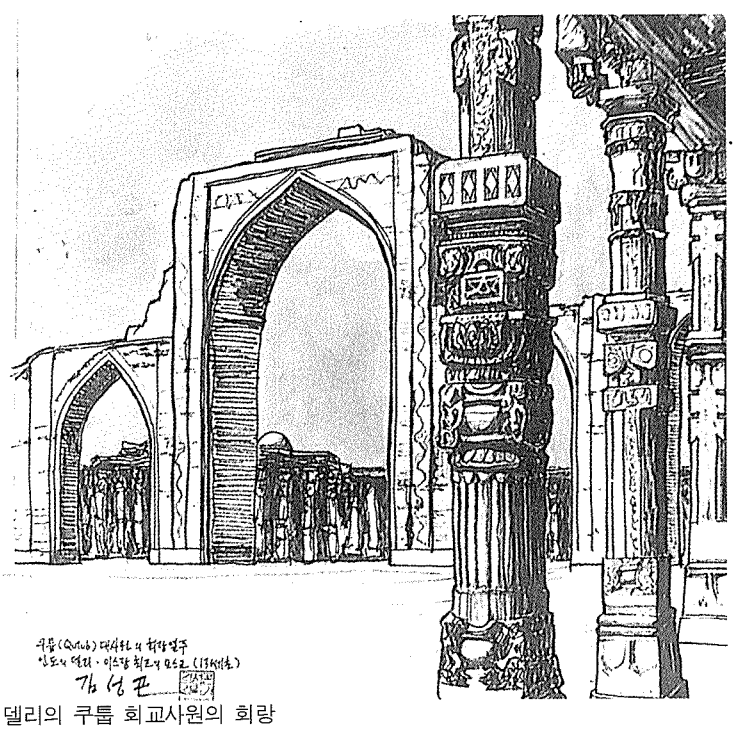
4. 간다라의 불교예술

간다라(Gandara)란 인더스강 상류지방을 말하며 오늘의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하고 있는 파키스탄의 카이버 고개에서 동쪽으로 카불강과 인더스강의 교차점을 건너 탁시라(Taxila, 수도 이스라마바드 교외)에 이르는 평야지대를 지칭하는 옛이름이다.

간다라지방은 페르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길목이고 또한 북쪽으로는 중국으로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이었다. 일찍부터 중앙아시아에서 유입된 민족의 정착이 있었고 기원전 6세기부터의 고대 유적들이 많은 곳이다. 헬레니즘의 조형예술(造形藝術)과 인도불교가 훌륭히 융합되어 탄생된 동서문화(東西文化)가 결정체인 간다라의 불교미술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원전 3세기의 아쇼카대왕(273~235 B.C)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대륙을 통일하고 불교를 숭상하여 한때는 불교의 중흥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대왕이 사망한 후 50년만에 왕국도 멸하고 불교도 쇠퇴되었으며 약 200년의 공백기를 다시 맞았다. 참된 의미로서 간다라가 불교의 성지(聖地)가 되고 불교예술의 황금기를 맞은 것은 큐산왕국의 카니시카왕(A.D 128~151)의 치세시이다. 이때에 처음으로 불상(佛像)도 만들어졌던 것이다. 건축사적(建築史的) 입장에서 보면 불상의 출현은 불탑건축(佛塔建築)의 한계를 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원건축(寺院建築)의 형식을 완성하게 되었다.

간다라의 불교미술이나 건축이 성행된 시기는 불교왕국이었던 쿠샨왕조(Kushan Empire A.D 64~241)의 약 200년이라 추정된다. 쿠샨왕국의 멸망과 함께 불교도 다시 쇠퇴되고 예술활동도 멈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세기에 출현한 굽타왕국(Gupta Empire A.D 320~520?)도 불교 중흥에 힘을 기울였으나 권력의 중심이 갠지스강변으로 옮겨짐에 따라 간다라는 변방으로서 간접적인 보호를 받았으리라 본다. 간다라에서 불교



델리의 쿠툽 회교사원의 회랑

활동의 종말을 가져온 것은 5세기 중엽(A.D 460~470)에 중앙아시아에서 침입한 백흉노(White Hun)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1,600개소의 사원을 파괴했다는 기록도 있거니와 이때에 간다라의 불교사원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다시는 재건되지 못했던 것이다.

간다라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백흉노가 침입하기 전인 5세기 초에 이곳을 방문했던 중국(東晋)의 구도승 법현(法顯:여행시기 A.D 399~413 佛國記를 남김)에 의하면 간다라는 무정부 상태였으나 그래도 당시에 천개소에 달하는 불교사원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200여년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를 쓴 현장(玄奘:여행시기 A.D 629~45)에 의하면 간다라의 수도 탁시라에는 불교사원은 많으나 황폐되었고 스님도 적었다고 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보면 간다라에서 불교나 그의 건축도 쿠샨왕국과 더불어 3세기 중엽에는 막이 내려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때부터 다시 1,700여년이 지난 지금의 간다라에는 빛나는 불교 조각품이나 불탑을 위시한 건축유적은 남아 있으나 스님도 불자도 전혀 없는 고장이다. 아마도 옛 간다라의 후예까지도 사라지고 간다라와는 전혀 무관한 이슬람이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5.간다라 건축의 고찰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아라비아해로 흐르는 인더스강의 상류지방인 간다라는 천연적인 건축재료가 풍부한 고장이다. 양질의 석재나 목재가 풍부하기 때문에 벽돌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 목구조의 연장으로서 미식구조(楣式構造;lintel-structure)형식이 성숙되었다. 대리석이 조각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널리 사용되었고 장식재료로서 테라코타나 회반죽이 이용되었다.

이 고장은 불교나 힌두교 또는 이슬람교 까지도 어떤 특정 종교에 관계없이 일상생활속에 연속적으로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종교건축에도 반영되어 대중의 쓰임에 알맞게 만들어졌다. 초기에는 숭배의 대상이었던 중원(衆園)에서 종교적 공간의 구심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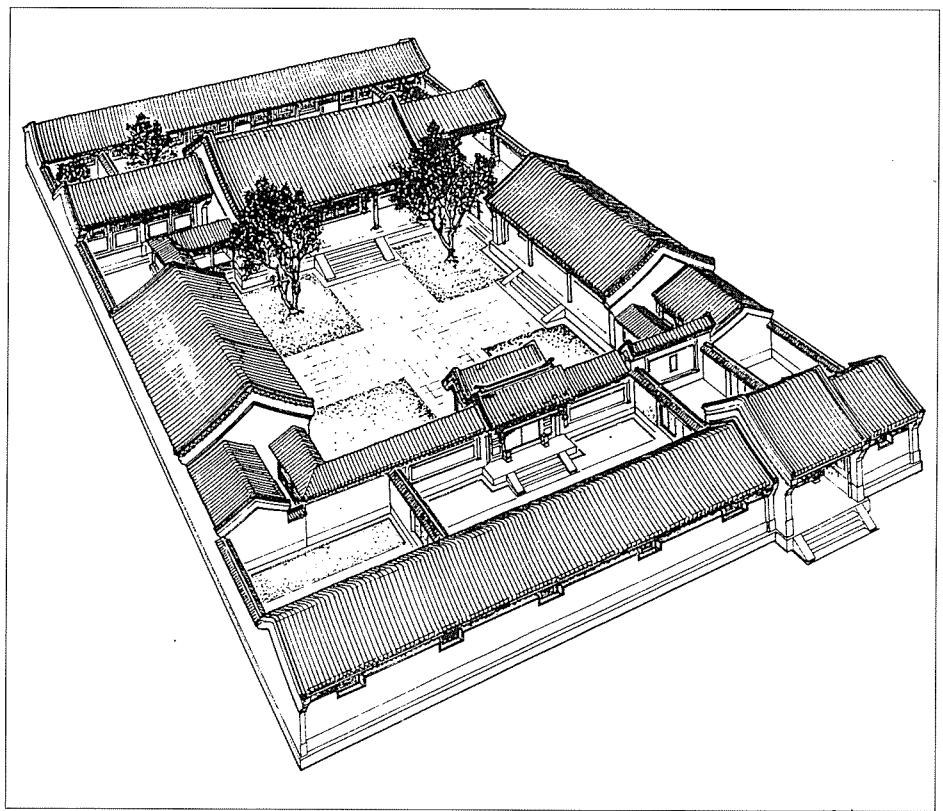
불상이 출현되고서 종래의 숭배대상이었던 불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양자는 결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래서 불탑건축에서 발전해서 사원건축형식으로 발전되었다는 일반적 통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탑원+승원(塔院+僧院)이 불교사원의 기본 구성요소이다. 스투파를 중심한 탑원은 종교적인 의식공간이었다. 지붕이 없는 개방된 건축공간을 이루고 이의 입지나 방위에 하등의 제한이 없이 자유로웠다.

불탑을 평지스투파와 산지스투파로 분류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입지에 따른 분류일 뿐이다. 이민족 이종교의 유입으로 불교는 소멸되고 평지의 것은 더욱 손쉽게 파괴되어 스투파의 기단부(基壇部)만이 잔존해 있는 것이다.

간다라 북부 수와트(Swat)계곡이 신거달(Shingerdar)이나 부트카라(Butkara)및 탁시라의 달마라지카(Dharma Rajika)도 현재 대탑으로서 스투파만이 남아 있으나 당초는 승원(Monastry)도 함께 있었음이 밝혀졌다.

탑원은 사원의 중심이고 종교적 의식공간이다. 중앙의 대탑을 두고 주변에 다시 작은탑(봉헌탑)들이 둘러지고 그 외부의 병풍형식으로 주위에 감실(龕室)이 다시 에워싸고 있다. 지붕이 없기에 태양광선에 의한 일사각도의 변화에 의한 가변적인 음영은 더욱 신비롭고 환상적인 멋진 건축공간을 이룬다.

그리고 승원건물의 기본구성은 중앙에 마당을 두고 주위에 많은 개실로 배열시키는 형식이다. 그런데 간다라 지방은 일찍부터 현재의 인도방면 보다는 서방아시아에 이르는 실크로드의 길목이었기에 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본다. 이런 건축물의 원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중정식주택과 맥을 같이 한다.



중국의 전통주택 : 사합원(四合院)